

연변주서류관 항일사료와 창의제품 발표

연변 초기 당조직 항일투쟁 중요한 사료 ... 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소재



▲ 서류문화창의제품

6월 9일, 제 18회 ‘국제 서류의 날’을 맞아 연변주서류관은 ‘당휘장이 서류를 비추고 문화가 에너지를 부여하다’를 주제로 서류관 소장 항일전쟁 서류사료와 새로 창작한 서류문화 창의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75주년을 기념해 이날 주서류관에서는 소장한 력사서류 자료를 발굴, 선별하여 ‘경신대토벌’과 ‘붉은 5월 투쟁’ 관련 항전 서류를 공개했다. 1920년 일본군이 ‘훈춘사건’을 구실로 자행한 ‘경신대토벌’은 <락탈당

한 후의 훈춘 거리 참상> 사진으로 고증되었다. 1930년 5월에 시작된 ‘붉은 5월 투쟁’은 <5·30> 운동 5주년 기념 선언> 등 5점의 옥필 서류를 통해 공개됐다. 이 서류들은 일제가 연변을 침략한 력사적 진상을 생생히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 초

기 당조직의 항일투쟁에 관한 중요한 사료 기록으로 애국주의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한편 서류 자료를 발굴하고 서류 선전을 확대하기 위해 연변주서류관은 주서류관 로고, ‘당소연(档小延)’, ‘당소변(档小边)’ IP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력사서류 퍼즐, 소품, IP 캐릭터의 핸드폰 거치대 등 서류문화 창의제품을 창작, 발표했다.

‘당소연’은 곱스러운 옷을 입고 미소를 머금은 고대 재간동이 녀인으로 변신했다. ‘당소변’은 정교한 모자를 쓰고 조선족 복장을 입은 고대 선비 모습으로 분장했다. 이 두 IP 캐릭터는 지역적 특색을 강조한 동시에 젊고 아름다우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서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번 발표는 서류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인민 대중의 더 나은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 주동기자

제 9 회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 연길서



6월 10일, 연길시문화라지오텔 레비존방송및관광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주관한 제 9회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가 막을 올렸다.

이번 음악회는 ‘전통의 뿌리를 지키며 무형문화의 빛을 보여준다’를 주제로 전통과 혁신을 깊이 융합시켜 조선족 음악예술의 독특한 표현으로 민족문화의 정수를 생동감 있게 보여

졌다. 이번 공연에는 국가급, 성급, 주급의 전통음악 무형문화 대표적 전승자들이 총출동했으며 몽골족 음악 예술 명인을 특별 초청해 공연을 선보였다. 장고, 해금, 가야금 등 민족 전통악기의 독특한 풍취를 독주, 합주, 성악 등 다양한 예술형식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몰입형 무형문화 체험을 선사했다.

음악회 현장은 만원이었고 프로그램 또한 다채로웠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족관현악 <닐리리아>, 감미로운 선율을 선보인 해금독주 <처녀의 노래>, 심금을 울려주는 녀성독창 <아리랑>, 풍년의 기쁨을 담은 장새납독주 <풍년의 새노래>, 몽골족 음악의 매력을 발산한 <록하베의 백마>, 조선족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색채를 불어넣은 민족관현악 <랑산백과 축영대>, 선율이 아름다운 목관

3중주 <무궁화 삼형제>, 전통악기의 정수를 선보인 장고독주 <설장고가락>과 가야금독주 <바다의 노래>, 남녀이중창 <동심타령>, 몽골족 마두금합주 <만마가 내달린다>는 공연 분위기를 고조제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민족관현악 <라질가>로 조선족들의 삶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달했다.

연길시 제 9회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문화 전승과 혁신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조선족 전통문화의 깊은 뿌리와 시대적 생명력을 독특한 예술형식으로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에게 음악을 감상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전승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 주동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약수동쏘베트정부 유적지 상공에 울려 퍼진 항일가요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 제국주의 군벌들은 죽기를 재촉코 / 강탈과 학살을 여지없이 하느냐...” 5월 27일 오전 9시 30분, 화룡시 두도진 서북쪽에 자리잡은 약수동쏘베트정부 유적지의 상공에는 1930년대 창작된 항일가요 <총동원가>의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연길철색항장단 40여명 단원들이 리상덕 단장의 인솔하에 이곳을 찾아 기념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약수동혁명렬사비에 화환을 진정하고 묵도를 드린 후 약수동쏘베트정부 설립 력사 배경과 혁명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친 박상환, 김순희, 신춘 등 력사들의 사적을 학습하고 당년 선렬들이 부르던 항일가요를 높이 부르면서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렸다.

약수동쏘베트정부는 1930년 5월 27일에 건립되었다. 그후 선후로 중공약수동지부, 중공평강구위와 중공연화현위가 이곳에 건립되었다. 약

수동 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항일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종 투쟁의 앞장에 섰으며 화룡의 ‘혁명요람’으로 불리며 연변의 항일투쟁사에 장렬한 시편을 엮었다. 당시 약수동에는 백여가구가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박상환, 김순희 등 70여명의 항일렬사들이 용솟음쳐나왔다. “...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 혁명의 기세는 전세계를 뒤흔다 / 돈 없는 노동자 망치 들고 나오고 / 땅 없는 농민은 호미 메고 나오라...” 이와 같은 내용의 <총동원가>는 바

로 이 시기에 이곳에서 불리워졌던 노래이다.

리상덕 단장은 연길철색항장단은 중국조선족항일가요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9월에 창단되어 후에 이름을 바꾸었지만 줄곧 강렬한 전투성과 절주감으로 인민들을 단결시키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한 항일가요를 불러왔다고 하면서 항전 승리 8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이 같은 행사를 계열로 10여차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김태국기자

료녕서 홍산문화 유적지 44 곳 새로 발굴



▲ 야외 조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들

료녕성유물유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대릉하 중류 일대에서 진행된 홍산문화 유적 조사에서 새로 44 곳의 홍산문화 유적지를 발굴 확인했다. 이는 홍산문명 진화 과정 연구에 또 하나의 확고한 증거를 더한 것으로 된다.

대릉하 중류 일대 홍산문화 유적 조사는 ‘중국 고고학 중점 프로젝트-홍산문화 문명화 진전 연구’의 핵심 전야 사업으로서 2025년 2월에 정식으로 가동되었으며 료녕성유물유적연구원이 료녕성 조양지역 여러 문화유산기관들과 공동으로 실행했다.

료녕성유물유적연구원 부연구원

우희석은 대릉하 중류지역이 홍산문화유산의 핵심 분포구인바 이번 유적 조사는 대릉하 분류와 그 지류를 포함한 총 1,500 평방키로미터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0여개 향진을 포괄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대릉하 중류지역 홍산문화유산의 분포 체계와 취락(聚落)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홍산문화의 문명화 진전 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했다. 앞으로 유적지 분포 범위와 홍산문화 취락 변천 과정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신화넷

[우리 음식문화 이야기]

미역국



▲ 미역국

미역국은 조리 과정은 비슷하지만 음식의 용도와 사용 대상이 바뀜으로 하여 음식의 의미도 함께 달라진다. 미역국은 자고로 조선반도 음식문화 가운데서 흠일할 수 없는 음식중 하나이다. 과거의 미역국은 대체로 생일에 먹는 음식, 산모보신용 음식이었고 ‘군일’(잔치나 손님접대)에 많이 찾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생활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미역국의 역할도 역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함경북도 태생이 절대다수인 연변을 실례로 들어보자. 이민 초기, 연변에 정착한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고에 시달리면서 생일상에 미역국 같은 것을 올리는 ‘사치’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 1992년에 중한 수교가 이루어진 후 한국과의 래왕이 빈번해져서야 점차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을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 미역국이 등장한 시기는 바로 60~70년대 (당시 연변은 농촌인구가 90% 이상) 였다. 그때는 애들의 백일잔치나 결혼식, 마을 년장자들의 생신잔치, 가족들중 누군가 군대를 가거나 제대하여 돌아와서 벌이는 잔치 그리고 자식들의 출세로 열리는 마을잔치 같은 경우에만 미역국을 먹을 수 있었다.

기억에 뚜렷하게 남은 어린시절인 60년대말경에 시골의 결혼이나 환갑 생일에 부모님을 따라가 팔고명을 묻힌 하얀 찰떡에 돼지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먹으면 최고의 향수였다. 직경이 거의 0.6미터 되는 큰 쇠가마솥에 뽕프로 자아올린 맑은 물을 부어넣고 뼈다귀 붙은 돼지고기를 미역과 두부, 집에서 오랜 세월 숙성시키고 발효시켜 만든 토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춰 장작불에 푹 끓여 큰 대접에 밥을 말아 먹으면 천하의 별미였다.

보통 잔치상에 오르는 주식들로는 찰떡이고 부식으로는 각종 야채, 두부 지짐 같은 것들과 콩나물무침 또는 고사리무침이 고작이었다. 영양가로 따지면 현대 영양학자들이 미역국을 삼계탕, 보신탕에 못지 않은 음식으로 꼽을 정도로 영양실조로 사람마다 배가 출출했던 그 시기에는 그것 만큼 별미인 음식도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간에 이르러 농촌인구의 급감과 보다 다양해진 음식 종류의 출현으로 지난날 우리가 먹었던 미역두부고기국은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결국 아기를 낳은 뒤 산모가 꼭 챙겨먹었던 미역국도 점차 중국식 쏘박죽, 닭알고기국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 연변전통음식문화연구회 회장 허향순

[성구속담 이야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는 춘추말기 <로자>에서 나온 속담이다.

천리길도 한걸음 아래서 시작되다는 것은 아무리 먼길도 첫걸음을 내디뎌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중에는 일의 성공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점차 축적되는 것에 있음을 비유한다.

◎유래: 동한시대에 진번(陳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열다섯살 때 그는 혼자 한 정원에 거주하며 공부했다. 어느 날 진번의 아버지 친구 설근(薛勤)이 그를 찾아왔다. 설근은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물건이 지저분히 놓여져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묘해져 진번에게 “왜 마당을 청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진번은 “대장부는 세상을 정돈할 큰 뜻을 품어야지 사소한 방청소 같은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설근은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진번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같이 넓은 포부를 지녔다는 것에 감탄하고 “큰 포부를 품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집을 청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천하를 평정하겠는가? 신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단단히 다지고 나서야 비로소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당시 조정은 비교적 혼란스러웠다. 외부에서는 외척이 란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는 권력이 모두 환관에게 집중되었다.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진번의 큰뜻은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앞일을 두고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였다. 한나라(漢朝) 때 중국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으며 조정에서는 ‘효렴을 천거’하는 방식으로 관원을 선발했다. 누구의 명성이 좋고 덕행이 좋고 학문이 깊으면 조정에서는 그를 관직에 임명했다. 진번은 설근의 권고를 듣고 성심껏 공부하며 신변의 사람들과 일에서 학문을 배웠다. 이러한 진번은 20대 초반에 조정에 채용되었다.

그는 한때 작은 고을의 보잘것없는 현령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천하를 평정하려는 그의 큰 포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한 현을 다스리는 일을 경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을 정비하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 현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렸다. 또한 현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부하고 실용적인 업무 경험을 쌓았다. 재임 기간 그는 치적(政績)이 뚜렷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에게 불러 경성으로 돌아와 상서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어떤 관직을 맡든 항상 본분을 다한 동시에 천하를 넓두에 두었다. 마침내 그는 태부에 이르러 조정의 중신이 되었다.

/ 종합